



건강한 수산업과 풍요로운 어촌을 위하여 어항의 고도위생관리 및 어촌활성화 촉구

일본 전국어항어장대회에 방기혁 이사장 초청·참석



▲ 대회장 전경

일본 전국어항어장협회는 지난 10월 24일 일본 에히메현 마츠야마시에서 제 64회 전국어항어장대회를 개최했다.

귀빈자격으로 참석한 방기혁 한국어촌어항협회 이사장은 이날 농림수산업성 장관, 일본 국회의원, 대일본수산업장, 수산청 어항어장정비부장, 에히메현 지사, 그리고 각지의 관계자 약 1,700여 명이 참석한 대회장에서 어촌어항어장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결집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양국 어촌어항어장 관계자들과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대회에서 일본 어촌어항어장 관계자들은 「어항·어장·어촌·해안의 정비 촉진」을 위하여 전국민의 총의를 모으자고 결의했다.

이를 위해

- △ 국토 강인화를 지원하는 어촌·어항의 방재·감재대책의 추진
- △ 안전·안심하고 신선한 수산물의 안정공급과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어항의 고도위생관리 대책의 추진

△ 수산자원의 회복·증대와 풍요로운 생태계를 지향하는 수산환경정비의 추진

△ 수산업·어촌의 다면적 기능발휘 활동과 산지수산업의 강화를 통한 수산업·어촌의 활성화 추진

등을 세부 실천과제로 선정했다.

한편 방기혁 이사장은 전국어항어장대회에 앞서 23일 저녁에는 수산관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대회전야 환영리셉션에 참석하여 일본 수산관계자들과 양국관심사에 대해서 환담을 나누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는 “일본은 수산물 소비가 계속 줄고 한국은 늘어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포르투갈이 1등, 한국이 2등, 일본이 3등으로 되어 버렸다. 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안전·안심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일본 어항의 고도한 위생 관리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국토 강인화>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어, 각

종 재해를 겪는 일본인들의 고통과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에는 각 현별로 어항어장협회가 있으며 그 협회장은 그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가 겸직하고 있다. 이는 어항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지자체의 예산이 되며, 어항이 만들어지면 어항부지 등이 각 지자체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어항예산 확보에 모든 지자체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어 “일본은 어항과 어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청소사

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각종 쓰레기와 폐그물이 상당히 그대로 쌓여 있는 것 같았다. 일본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여 침전물 실태에 대해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정악화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수백억원을 들여 청소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어항정화 시스템이 일본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회와 관련하여 현지 미야쿠보(宮窪)어항, 야와타하마(八幡浜)어항 등을 시찰하였다. 일본에서도 어촌 소득 증대를 위하여 6차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 수단은 현지 생산물은 현지에서 소비시킨다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시책이었다. 즉 교통이 편리한 각지에 활선이 판매점, 식당 등을 만들고 자연경관의 상품화, 역사적 문화재 재현 사업 등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 금후 어민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